

소값하락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방안



이 병 오

강원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

1. 소값하락의 요인과 문제점

95년 9월 이후 하락하기 시작한 소값은 사육농가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95년 9월 한우 소소 500kg의 가격은 327.5만원이었는데 96년 6월에는 251.4만원으로 76.1만원(23.2%)이 하락했다. 물론 정부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예견하고 금년 5월 29일부터 전국의 가축시장을 대상으로 산지 소 수매에 들어간 결과 8월 16일 현재의 소값은 278.6만원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문제가 끝난 것 같지는 않다. 우선 경제외적인 요인, 예를들어 광우병 파동에 이은 O-157파동 등으로 쇠고기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다. 작년말 고름우유 사건으로 우유소비가 크게 줄었던 것과 같이 우분에서 O-157이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계속되면 소비자들은 쇠고기의 소비를 줄이게 될 것이다.

현재 정부의 수매기준인 250만원 선(생체 kg당 5,000원)이 무너질 경우 방패현상이 일어나면 소값은

85년과 같이 견잡을 수 없는 상태로 치달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그 동안 소값이 좋았기 때문에 비싼 송아지를 입식하여 비육하고 있는 농가들은 큰 손실을 입게 된다. 한우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서도 이러한 파국은 막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에서 축협중앙회나 회원조합에서는 금년초부터 쇠고기 소매가격을 10~20% 인하하기도 하고, 수매한 한우고기는 아예 마진없이 판매하는 등 소비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소값은 이론적으로 볼 때 산지시장에서의 소에 대한 수요, 공급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데 이는 소비시장에서의 쇠고기에 대한 수요, 공급상황으로부터 파생된다. 이렇게 볼 때 현재의 소값하락은 쇠고기 수입의 증가나 사육두수 증가로 인한 국내 생산량 증대 등 공급측면에서의 급속한 증가가 수요확대 추세를 능가하는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수요확대를 저해하는 요소로 앞서 언급한 광우병이나 O-157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 외에도 쇠고기소매가격이 산지가격의

낙농육우산업 이대로가 좋은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하여 하방경직성을 보이는 것도 지적될 수 있겠다.

그밖에도 소값에 영향을 미치는 메카니즘을 보면 많은 요소들이 상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작용한다. 한우 산지가격은 기본적으로 쇠고기 도매가격과 배합사료 가격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도매가격은 출하두수 및 쇠고기수입가격 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쇠고기 소비량이나 돼지고기 가격수준은 쇠고기의 소매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결국 한우가격에 파급된다.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소의 두수나 가격이 주기성을 띤다는 점이다.

가. 쇠고기의 수급실적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쇠고기의 수요나 공급은 80년대 후반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다. 쇠고기 파

동이 났던 1985년과 최근년도인 95년을 비교해보면 수요(공급)량은 12만톤에서 30만톤으로 10년간 무려 2.5배나 증가하였다. 물론 수요의 증가는 인구의 증가와 아울러 1인당 소비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85년의 2.9kg에서 95년의 6.7kg으로 2.3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공급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생산이 11.6만톤에서 15.5만톤으로 34% 정도 증가한데 비해 수입량은 89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이제는 국내생산량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즉, 급년의 소값하락의 저변에는 쇠고기시장이 수입을 전제로 한 공급과잉 기조가 고착화되어 있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노정시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 90년 한 미 쇠고기협상의 타결로 수입쿼터제도를 공식 채택한 이래 한해도 빠짐없이 쿼터량을 훨씬 상회하는 쇠고기를 수입하고

쇠고기 수급실적

(단위: 천톤, %)

연 도	수 요	공 급		1인당 소비량	자 급 도	
		생 산	수 입			
80	100.0	100.0	93.1	6.9	2.6	93.1
81	93.2	93.2	69.3	23.9	2.4	74.2
82	106.5	106.5	61.5	45.0	2.7	57.7
83	115.5	115.5	66.1	49.4	2.9	57.7
84	106.5	106.5	90.0	16.5	2.6	84.5
85	120.4	120.4	115.7	4.7	2.9	96.1
86	147.9	147.9	444.4	3.6	3.5	97.6
87	152.0	152.0	152.0	-	3.6	100.0
88	141.5	141.5	132.2	9.3	3.4	93.4
89	144.5	144.5	90.0	54.5	3.4	62.3
90	180.6	180.6	94.8	85.8	4.1	52.5
91	223.1	226.7	98.4	128.3	5.2	44.1
92	226.9	236.9	99.6	135.5	5.2	43.9
93	233.0	240.0	129.6	110.4	5.3	56.3
94	269.8	273.9	147.3	126.6	6.1	54.6
95	301.2	301.2	154.7	146.5	6.7	51.4

자료: 농림부, 농림수산물주요통계, 1990, 1996.

있다. 수입의 증가로 쇠고기의 자급도는 85년의 96.1%에서 95년의 51.4%로 크게 떨어지고 있다.

그동안 쿼타량 이상으로 쇠고기가 수입될 수 있었던 것은 수요가 국내생산량 가지고는 도저히 충당될 수 없었기 때문인데 그 배경에는 1인당 쇠고기소비 급증이 있다. 그러나 육식문화권이 아닌 우리나라의 1인당 쇠고기 소비증가는 서서히 둔화경향으로 돌아설 것이다. 참고로 일본의 1인당 소비량은 지육기준으로 92년의 9.6kg에서 96년(예측치)에 12.4kg으로 이 기간중 29% 증가할 것으로 USDA는 예측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92년의 7.1kg에서 96년의 9.8kg으로 38%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결국 한국인의 쇠고기 선호경향이 강하다고는 하나 1인당 소비량이 10kg선을 넘는 수준에서 쇠고기의 소비증가가 일본의 예처럼 크게 둔화되리라고 예상된다. 한편 2001년 쇠고기 수입개방시까지 수입쿼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97년 16.7만톤, 98년 18.7만톤, 99년 20.6만톤, 2000년 22.5만톤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들어온 수입육이 안팔리면 수입육끼리 경쟁이 붙어 가격이 내려가고 이는 한우고기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앞으로 한우육의 고품질화로 수입육과의 제품차별화를 강화하거나 한우고기 자체의 수급조절을 꾀하지 않는다면 한우가격의 하락요인은 계속해서 발생하리라고 본다.

나. 한우두수 사이클

〈표 2〉에서 한우 사육두수를 보면 96년 6월 현재 개국 이래 최고치인 281.4만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85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10년 반만의 수치갱신이다. 어느나라나 육우두수는 생산측면에서의 생물학적 특성과 기타 곡물가격이나 경기의 변동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주기현상을 나타낸다. 미국은 9~11년, 일본은 4~6년의 주기를 띤다. 우리나라의 경우 71~76년(74년 최고치), 76~81년(78년 최고치)은 5년 주기를 나타내다가 81~89년(85년 최고치)은 8년주기로 길어졌으며, 96년을 정점으로 보면 이번 주기는

10~11년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짙다.

한우 사육두수와 출하두수(도축두수), 한우가격은 서로 몇 년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사이클을 그린다. 한우 사육두수는 85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가격 폭락으로 어어졌고 그 배경에는 가격하락에 따른 방매현상이 작용하고 있다. 암소도축까지 허용하면서 86~87년 사이에 무려 170만두의 한우가 도축되었다. 이렇게 되자 88년 이후 시장에 출하되는 한우두수가 크게 줄게되고 이는 동년 가격의 상승과 아울러 90년의 두수증가로 이어진다.

지금의 상황은 88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던 한우가격이 93년에 약간의 기복이 있었으나 95년까지 계속되면서 사육의욕을 자극시켜 한우두수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본다. 그러나 사육두수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도축두수의 증가를 초래하고 이는 큰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가격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도축두수는 93년부터 서서히 증가하여 95년에는 58만두까지 증가하였다. 쇠고기의 경우 가공품제조가 거의 없고 수출도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적절한 사육증가를 억제하거나 가격인하를 통해 수요촉진을 하지 않을 경우 가격안정의 완충장치가 없어 가격하락은 큰 폭으로 오래 갈 수밖에 없다. 성우를 수매한다고 해도 결국 이를 도축하여 시장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효과적인 장치는 아니다.

더구나 지금은 85년의 소값파동때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우선 수입개방을 불과 5년 앞두고 사료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자칫 한우가격 폭락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한우생산기반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사료가격은 금년의 작황으로 볼 때 내년까지도 계속 오를 전망인데 이렇게 되면 비싼 송아지 입식과 사료비 상승의 2중고에 출하가격 하락의 3중고를 겪게 되어 한우 비육용가는 수익성면에서 존립이 어려워진다. 또한 많은 축산농가들은 용자를 얻어 현대식 축사를 크게 지어놓고 있는데 소값이 하락하면 이는 고스란히 부채로 남게된다.

낙농육우산업 이대로가 좋은가?

한우두수 및 가격동향

연 도	사육두수 (만두)	도축두수(만두)			한우숫소가격 (만원/500Kg)	배합사료가격 (원/kg)
		한우두수	한우비율(%)			
80	142.7	53.1	-	-	98.1	139.2
81	131.2	38.9	-	-	145.1	168.1
82	152.6	30.3	-	-	176.9	161.0
83	194.0	31.7	-	-	190.1	173.0
84	231.8	45.8	-	-	178.9	192.1
85	255.3	74.6	55.6	74.6	138.1	181.1
86	237.0	108.6	90.2	83.1	124.4	167.4
87	192.3	100.5	80.3	79.9	126.8	145.7
88	155.9	85.2	65.0	76.3	175.6	147.9
89	153.6	56.7	39.7	70.0	216.8	160.2
90	162.1	55.5	31.1	56.1	240.6	161.1
91	177.3	54.5	30.2	55.5	274.0	161.5
92	201.9	53.7	34.5	64.2	300.4	165.1
93	226.1	68.7	48.8	71.0	269.3	166.9
94	239.3	77.8	57.6	74.0	291.8	172.9
95	259.4	78.0	58.0	74.4	317.3	185.0
96.6	281.4	31.8	23.6	74.1	251.4	213.9

자료 : 축협중앙회, 축산물 가격 및 수급자료, 1996., 축협중앙회, 축협조사(계)월보, 1986. 2. 1996. 7.

주 : (1) 96년도의 경우 도축두수는 1~5월까지의 합계, 배합사료 가격은 5월 현재 가격임.

(2) 배합사료 가격은 공장도가격이며 큰소비육(I) 또는 큰소비육 전기의 수치임.

다. 쇠고기가격의 하방경직성

일반적인 가격 메카니즘에 의하면 공급과잉은 가격 하락을 초래하고, 가격하락은 수요증대로 이어져 다시 가격이 균형수준을 찾게 된다. 그러나 쇠고기의 경우 산지가격의 하락이 소매가격의 하락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 하방경직성을 띤다. 이러한 현상은 소값 하락이 쇠고기 수요증대로 연계되어 소값의 회복을 유도하는데 장애요소가 된다.

필자의 계측에 의하면 1983~94년간 쇠고기의 산지, 도매, 소매가격간 가격전도성은 1차함수의 기울기로 볼 때 산지와 도매가격이 0.99, 도매와 소매가 2.34, 산지와 소매가 2.55이다. 즉 산지가격이 1,000원 올랐을때 도매가격은 990원, 소매가격은 2,550원

오르고, 도매가격이 1,000원 올랐을때 소매가격은 2,340원 오른다는 이야기이다. 즉, 산지가격과 도매가격은 잘 연동이 되나 소매가격으로 가면 큰 폭으로 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70년대에는 그 격차가 이렇게 크지 않았다. 결국 80년대에 들어와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을 중심으로 부위별로 소매가격에 차등을 두고 포장육 등 마케팅서비스 부문이 증대되면서 소매가격의 상승율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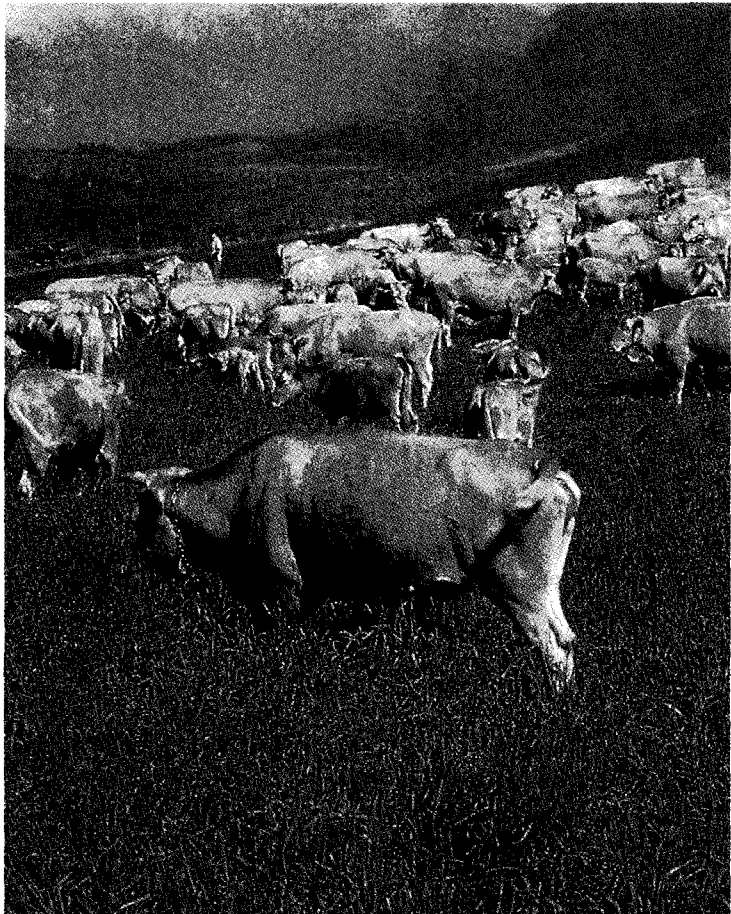
1983~94년의 평균치로 볼 때 산지가격과 도매가격간의 상승율은 45%이었는데 도매가격과 소매가격간의 상승율은 71%이다. 특히 92~94년의 경우 전자가 24~27%인데 반해 후자는 86~117%로 큰 차이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양방향으로 성

림하지 않고 상승시는 쉽게 연동하나 하락시는 소매가격이 경직성을 띤다는데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원료가격인 산지가격이 오르면 소매점가격이나 음식점가격은 금방 올라나, 산지가격이 내려도 소매가격은 안내리는데 있다. 결국 산지가격이 내릴 때 소매가격을 그대로 두면 마진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구태여 내리려고 하지 않는 것이며 많은 소매점들이 마치 카르텔(담합)을 형성하듯이 함께 행동하기 때문에 단속이나 행정지도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2. 한우두수 및 가격전망

축협중앙회의 축산관측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한우 사육두수는 매년 9월을 정점으로하여 이듬해 3월까지 감소하다가 6월부터 다시 증가하는 계절성을 띠었으나 95년 이후 계절성도 없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장기간의 소값 호황으로 가임 암소인 2세 이상 큰 암소 마리수는 96년 6월 현재 119만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아직도 소 사육두수의 증가 잠재력이 매우 크다. 실제로 95년 6월부터 96년 6월 사이에 한우 전체 사육두수는 12.6% 증가한데 비해 2세 이상 큰 암소두수는 13.8% 증가하였다. 이는 번식의욕이 높아 암소도축을 억제하면서 유보시켜 놓기 때문인데 결국 한우두수 증가의 전인차 역할을 하게 된다.

대가축의 특성상, 또 축사증축 등 투자를 해 놓은 상태에서 가격이 약세국면에서 지속되거나 또는 떨어져도 당장 사육두수를 크게 감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공급측면에서의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년도의 쇠고기수입 킬타량은 14.7만톤인데 지난 5~6월 소값안정을 위해 수입육방출을



억제하였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어떤 형태로든 나머지를 방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공급측면을 더욱 자극할 것이다.

수요측면에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O-157과 같은 경제외적인 돌출사건이 장기화될 경우 수요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전반적인 불경기 또한 소비를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쇠고기가격의 하방경직성도 소매가격 하락을 저해하여 수요증가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물론 육류등급제를 소매단계까지 확대 시행하여 한우 고급육에 대한 수요를 자극할 수는 있겠으나 경제성장률의 둔화와 고가격으로 큰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렇게 볼때 쇠고기 수요의 정체와 사육두수의 증

낙농육우산업 이대로가 좋은가?

가 및 수입육 방출 증대는 공급과잉을 초래하여 소값은 현재수준 이하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값이 어느 수준이 될 것인가는 정부의 소수매량 즉 정책적 개입의 정도와 사육농가가 스스로 사육의욕을 자제하여 경산우의 수정율을 얼마나 낮추느냐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3. 소값회복과 안정을 위한 대책방안

이상 소값하락의 원인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는데 그 처방도 이러한 요인의 해결 차원에서 강구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다.

첫째, 경제성장률의 둔화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O-157과 같은 돌발적인 수요억제 요소는 조기에 제거해야 한다. 자조금제도 등 쇠고기 소비홍보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지만 우선 축협이나 정부, 생산자 스스로도 가시적인 자구노력을 기울여 매스컴 등에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기적으로 소비촉진을 위해 축산기업조합 등 소매점의 협조를 얻어 소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거나 특정 요일 등을 정해 쇠고기 세일(가격파괴) 퐁 충격요법을 도입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번 소값하락에 대해 한우 사육농가는 물론 유통업계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조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한우산업 자체의 기반과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자조금제도를 도입하여 소 한 마리 출하당 kg단위로 일정액의 재원을 비축한 뒤, 쇠고기의 영양학적 우수성이나 제품개발, 소비홍보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둘째, 정부차원에서는 소 수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도축한 쇠고기의 시장방출을 유통기한이 허용하는 한 늦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입육의 방출도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이나 연말 등 시기를 보아서 조절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소값이 일정선을 넘어 하락하면 농민들의 심리적 자극으로 방매현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한우산업 보호의지를 보여줘

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일본과 같이 쇠고기 수입개방 이후의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한 연착륙 수단으로 송아지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해서 사육농가들이 안심하고 경영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많은 재원이 소요된다거나 WTO체제에 위반된다고는 하나, 재원이 소요되는 문제는 한우산업이 유지됨으로써 얻는 국가적 이익이 소요재원보다 크면 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 생산자들도 일정액을 송아지가격안정기금에 보험가입식으로 출자를 할 수도 있다. WTO체제와의 문제는 축협을 창구로 하던가 AMS(종합보호추진치)의 조절 등으로 방안을 강구하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셋째, 농가측면에서는 일관경영의 도입으로 송아지 입식비용의 부담을 완화시키거나 거세의 확대로 좋은 등급을 받는 것이 소값하락으로 인한 수익의 감소를 극소화시키는 길이다. 금년 8월 16일 현재 (B-1)등급의 kg당 경락가격은 12,455원, (B-2)가 11,895원, (A-3)가 9,466원이다. 소 평균 도체중을 290kg으로 잡으면 두당 가격차는 (B-1)이 (B-2)보다 16.2만원, (B-2)가 (A-3)보다 70.4만원, (B-1)이 (A-3)보다 86.7만원 높게 된다. 결국 평균적인 소값하락에도 불구하고 육질등급이 좋은 고기일수록 제품차별화의 영향을 받아 높은 가격을 유지하게 될 것이므로 농가입장에서는 다양하고 치밀한 사양관리 및 경영전략을 도입하여 좋은 육질등급을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구조개선 측면에서 한우 공공육성목장을 설립한다. 송아지가격 하락시 송아지를 구입 육성시키고 상승시 육성우를 방출하는 식으로 송아지가격안정화를 통해 소값을 안정시키고, 공공육성목장과 한우개량단지를 연계시켜 고급송아지 공급기지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수정란이식 등을 통해 단기에 고능력 송아지를 육종하여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국가적 사업에 돌입하는 것이 한우문제의 본질적 처방이라고 생각한다. ☺

●필자 연락처:(0361)50-8662